



# 성체성사의 은총

“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 ”

---

# 시작기도: 미사 통상문 부활감사송 5

주님,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

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때에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.

**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몸을 바쳐 옛 제사를 완성하셨으며**

**저희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아버지께 맡기시어**

**사제요 제대이며 어린양이 되셨나이나.**

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

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.

그리스도인의 삶은...

은총체험의 여정



---

**은총:** 하느님이  
베푸시는 무상의  
호의와 사랑





은총 체험의 첫 장소?

• 우리의 모든 '일상'

• 그렇다면, 성사의  
위상-역할은?

---

**출발점:**

**그리스도를 통해 변화된**

**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**



**그리스도 =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새로운 계약**

**하느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새로워졌다**

# 어떤 전환? 새로움?

구약	신약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'얼굴 없는' 동반자 하느님</li><li>- 성전 안 현존</li>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인간의 얼굴로 다가오시는 하느님 : 예수의 인성(인격) 안에서 스스로 를 온전히 표현</li><li>-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느님의 현존, 구원 (*찢어진 성전 휘장)</li></ul>

## 구약

- 문자로 고정된 법규정(율법)
-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

## 신약

-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'살아있는' 법
-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에게 조건 없이 다가오심
- \*당신을 거부하는 이들마저 품으시는 용서와 사랑의 힘:  
“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” (마르 14,24)

---

# 이러한 변화는 신앙인 삶에서 예식/예배가 지닌 위상을 뒤바꾼다!

- 구약에서 신앙을 지탱하는 중심: 성전 제사, 율법 준수
- 예배는 하느님의 호의, 용서를 얻기 위한(획득하기 위한!) 수단, 도구

---

## 그러나 그리스도의 파스카 사건은 이러한 전망을 뒤집는다

-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 안에서,
- 자유를 주시는 성령의 법에 따라,
- 하느님 마음에 드는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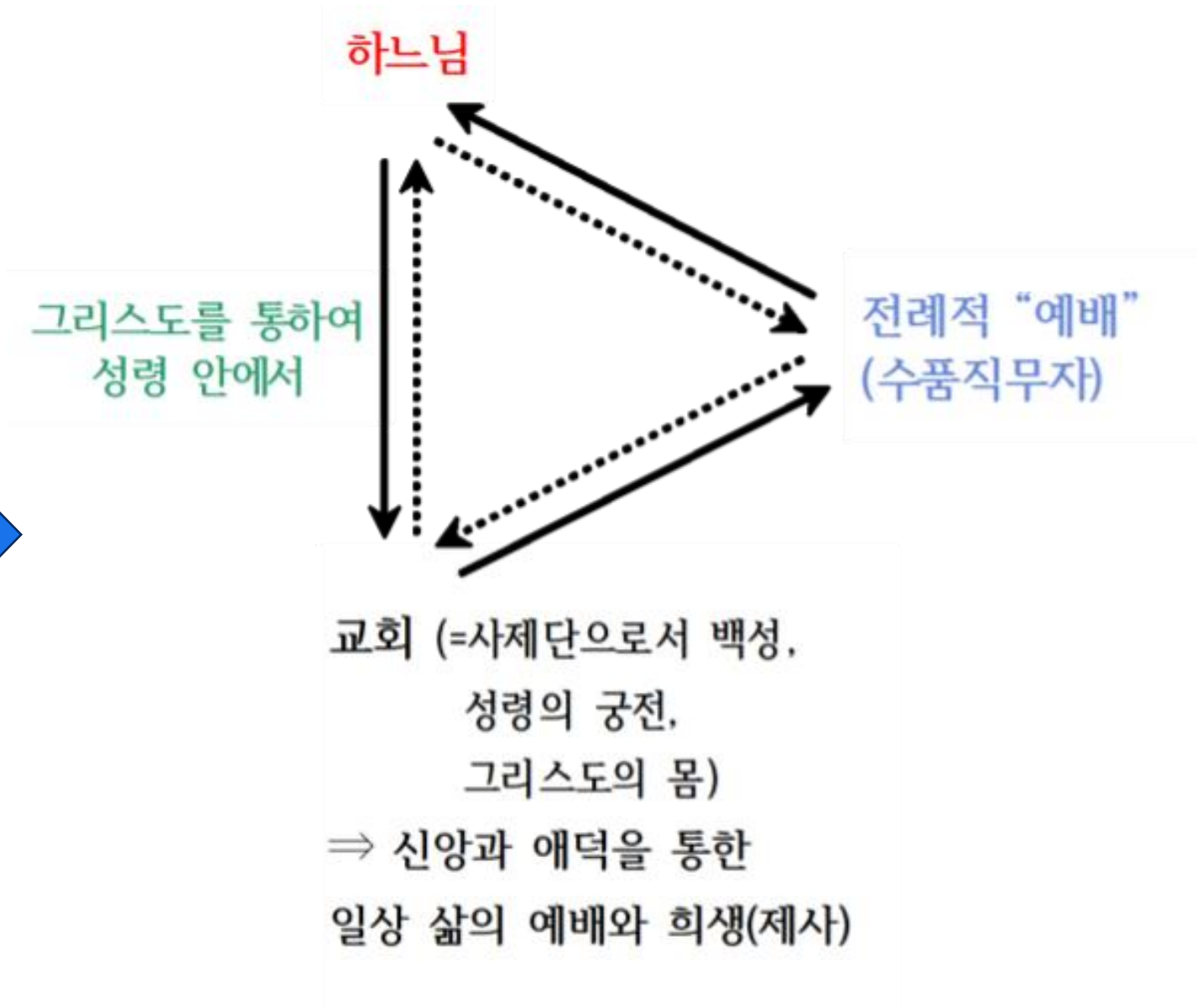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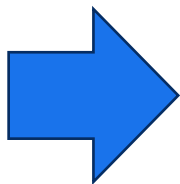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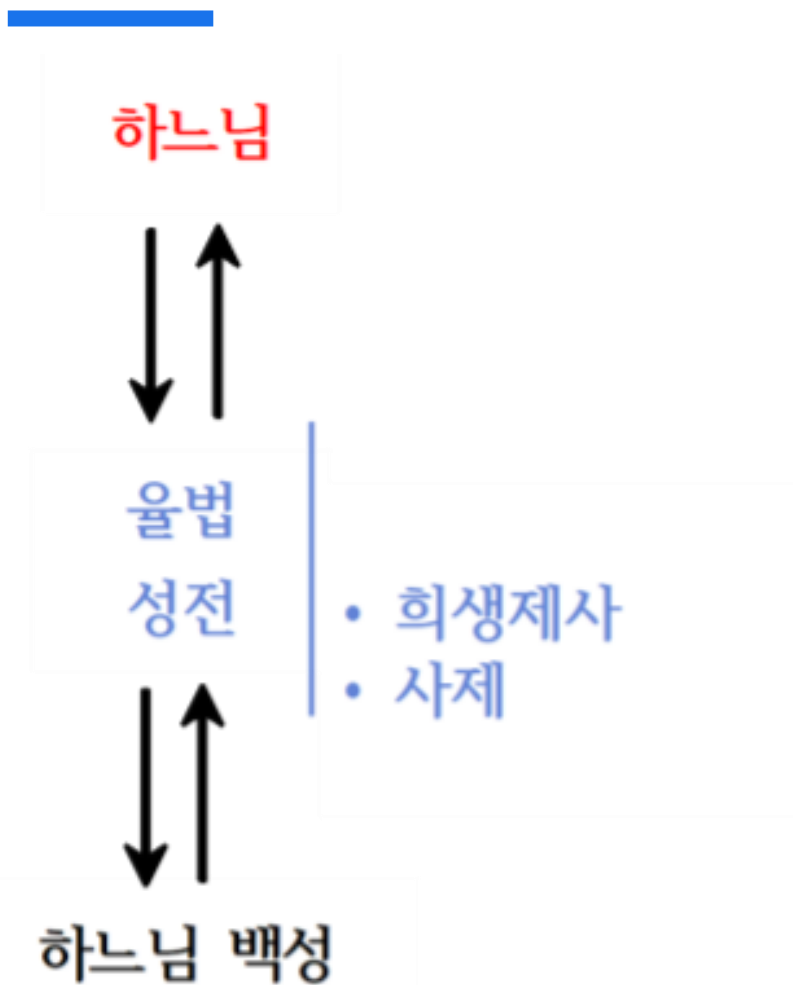
- 
- 이제 성전이 아니라 **일상의 삶**이 **하느님을 만나는 장소**(은총을 체험하는 장소)이자, 그분을 향한 **예배의 장소**가 된다!
  - 또한, 유헌제사가 아니라, **일상의 모든 사명과 책임을 통해 나 자신을 봉헌하는 (실존적 차원의) 희생 제사**를 하느님께 드리게 된다. [=보편 사제직]

-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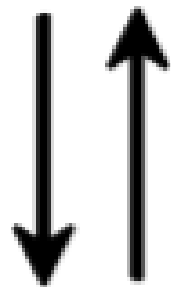
따라서, 그리스도인에게 첫째 가는 예배란,

- 일상의 삶 안에서 신앙과 애덕을 통해 하느님 은총의 선물을 맞이하고 감사드리는 것
- 곧 **‘영과 진리’ 안에서 (요한 4, 24) 하느님을 섬기고**  
하느님께 자신을 바치는 태도와 행동

- 
- “형제 여러분 [...] 여러분의 몸을 하느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.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드려야 하는 합당한 예배입니다” (로마 12,1)
  - “선행과 나눔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. 이러한 것들이 하느님 마음에 드는 제물입니다” (히브 13,16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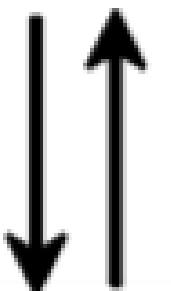


하느님



율법  
성전

- 희생제사
- 사제



하느님 백성

하느님

그리스도를 통하여  
성령 안에서

전례적 “예배”  
(수품직무자)

교회 (=사제단으로서 백성,  
성령의 궁전,  
그리스도의 몸)

⇒ 신앙과 애덕을 통한  
일상 삶의 예배와 희생(제사)

---

# 전례적 예배의 새로운 위상, 역할

## 1) 교회 공동체의 감사와 찬미 (오늘날 충분히 강조되지 않는 차원!)

- 전례적 예배(성사)는 우리가 일상에서 받은 은총에 대해 **하느님**  
**께 드리는 감사와 찬미의 표현**;

=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삶을 찬미와 감사의 예물로 바치며 하느님  
께 받은 은총을 돌려 드림 (= '보편사제직'에 따른 봉헌 행위!)

- 주관적 신앙을 예식을 통해 상징적으로 표현 = 의탁과 신뢰의 관계  
드러냄



# 전례적 예배의 새로운 위상, 역할


## 2) 하느님 은총의 현재화, 작용

- 인정과 감사를 통해 표현된 **하느님 은총**이, **신앙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선물로서 새롭게 선사**; 곧 신앙인 자신이 주님께 받은 은총에 대한 응답을 살아가도록 – 행동을 통해, 삶의 방식을 통해 증거하도록 – ‘힘과 은총’ (성사적 은총)을 부여

---

하느님께서서는 성사를 통해  
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힘,  
세상 안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 
힘과 가능성을 주신다.

하지만 어떻게? 어떤 의미에서 나와 상관?  
성사 은총이 작용하는 방식은??



## II. 말씀의 힘에서부터

[성사의 효력]

---

---

# 성사 거행의 중심 : 예식을 통해 작용하는 말씀의 힘

- 말씀: 관계를 지탱하는 장소 (말을 주고 받음)
  - 관계를 변화(심화)시키는 말/말씀의 힘: 언어의 수행적(실천적) 차원
  - 특별히 **상징적 표현** 또한 이러한 언어의 수행적 차원(‘말이 지닌 힘’)에서부터
    - 약속과 포용이 실현하는 것?
    - 장례식의 꽃 한 송이가 ‘말하는 것’?
- ⇒ **관계를 깊게, 진정하게 만든다 (드러내고-실현) : \*\*수행될 때마다 새롭게!**

---

# 성사의 효력-효과는 바로 말/말씀의 힘에서부터 이해해야 한다!

- 전례·성사 거행의 본성이 바로 예식적 언어-상징 행위
  - (말, 노래, 제스처, 동작, 상징적 표현, 상징물 = 모든 것이 나에게 ‘말한다’: ‘언어적 차원에서 작용’)
- 보이지 않게 현존하시는 하느님과의 관계를 (하느님을 향한 감사, 찬미, 청원, 신뢰와 의탁, 의존에 대한 인정, 경배...) **예식의 틀에 따라 상징적으로 표현**
  - = 언어적 수행 차원, 곧 말/말씀의 힘과 상관

---

이러한 상징적 표현(말/말씀의 작용)을 통해...

• 하느님과의 관계가 ‘**실제적**’이 된다.

• 신앙고백이 “**행동**”이 된다!





---

• 따라서 성사의 효과/효력은 다음과 같은 것이 아니다.

- 인간 외부에서 주어지는 마법과 같은 힘?
- 나를 위해 소유·축적할 수 있는 특권?

• 오히려 성사의 효과/효력은

⇒ 말씀이 우리 존재를 가로지르며 변화와 응답(회심)을 불러일으키는 작용

⇒ 성사의 은총은 말씀-예식과 동떨어진 채 주어지지 않는다:

말씀-예식 ' 안에서 ', 말씀-예식을 ' 통해서 ' 작용

---

성사의 '은총'은

하느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변화시키는,

(='응답'을 불러일으키는) **말씀의 힘**을 통해

이해해야 한다.



이해를 돕는 몇 가지 성경 속 이미지...



“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다는 말ियो?  
아니면, 내가 후하다고 해서 시기하는 것이요?”

---

은총을 참되게  
받는 방식?



봉헌 (다시 내어드림)

은총을 ( 은총으로 )  
받아들이는  
진정성은?



나눔과 비움 (영성체의 의미)

---

# 농부와 아들들 (라퐁텐의 우화)





**보물이란  
바로...**

---

- 
- 은총이라는 보물은 부지런히 받을 가는 일과 상관
  - 신앙인의 몸과 마음이라는 받을, 하느님 말씀이 같아  
있고 일하신다
  - 하느님 말씀이, 성사의 예식적-상징적 표현을 통해  
신앙인의 몸과 마음을 가로지르며 일하신다. 그를  
회심-변화시키며 행동을 통해 열매 맺도록 하신다

# “양파 한 뿌리”

(“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”  
중에서)

- 선물로 받은 은총이  
자신만을 위한 전유물로  
전락할 때, 모든 것이  
끊어진다...
- 지옥은 자신 안에 철저히  
굽어든 나머지, 다른이가  
들어올 공간, 응답의  
가능성이 없는 ‘단절’ 아닐까?



---

- 따라서, 은총은 나를 위한 소유와 축적의 대상이 아니라, 삶 안에서 구체적으로 완수해야 할 사명이자 책임!

- 은총에 대한 핵심 질문은:

내가 원하는 대로, 원하는 만큼 은총을 많이, 받았는가?...가 아니라,

**이미 주님께 받은 은총으로 나는 무엇을 했는가?**

---

# 성체성사의 은총

## 1) 그리스도께 연결-동화 (결합)

- 우리 몸 전체가 **말씀에 대한 경청**이 된다
- 예식을 가로질러 우리 몸 위로 펼쳐지는 **그리스도의 말씀**
- 연결-동화: 예수님 **처럼** 행동할 수 있는 **힘과 가능성**을 주신다



“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(καθώς) 너희도 하라고  
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.”

---

- 
- 예수님이 말씀하신 ‘~처럼 (καθώς)’은 단순한 모방(=내 힘으로 따라함)이 아니다 :

요한 복음사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들의 행동에 함께 하실 예수님의 현존과 힘 강조. 곧, “내가 너희에게 이처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”는 의미

-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당신처럼 행동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.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나눔과 봉사를 친히 완성하신다

---

# 연결을 통한 동화...

- 나의 아저씨에 등장하는  
‘이지안’의 예...



“아저씨 소리 다 좋았어요.  
아저씨 말, 생각, 발소리 다.  
사람이 뭔지 처음 본거  
같았어요”



## 예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...

⇒ 우리는 특별히 말씀(복음)을  
통해 예수님께 연결!

---

## 2) 그리스도의 몸으로 '되어감'

- “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**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**” (감사기도 2양식 – 청원과 간구)
- “성자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저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**한 마음 한 몸**이 되게 하소서” (감사기도 3양식 – 청원과 간구)

- 
- “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이 되십시오.  
그리고 여러분 자신인 그것을  
받으십시오” (아우구스티누스)
  - 성체 안 그리스도의 현존 =
  - 아낌없는 온전한 내어줌 (그리스도의  
인격전체)
  - 우리 또한 “그리스도의 몸이 되어가게  
하는” 관계의 힘



---

‘그리스도의 몸’이 되어감 :  
세 가지 차원의 관계가 더욱  
깊어지는 것!



- 교회 = 머리가신 그리스도와의 관계
- (사랑받는) 자녀 = 아버지 하느님과의 관계
- 형제·자매 = 모든 이웃과의 관계, 타인과의 관계